

우리 삶을 풍부하게 하는 CONTENTS

# 진짜 나를 만드는 나만의 콘텐츠

남다른 나만의 콘텐츠를 갖고 있나요? 진짜 나를 만드는 내 안의 콘텐츠. 벤처인들의 남다른 콘텐츠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 인비닷컴 심선애

나? 남과 다른 나를 만드는 것? 그러기 위해선 내가 남과 달라야 하는데 그게 뭐지? 최근 일본에서는 사실탐정을 고용해 남이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알아보는 '사실탐정' 코너가 인기라고 하는데. 나도 한번 조사해봐? ㅋㅋㅋ.

나를 돌이켜 생각해 보건데, 내 안의 나를 만드는 것은 나와 다른 남을 연결해 주는 마음, 즉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다. 쉽게 얘기해서 '이해심', 더 폭넓게 설명하면 '관용' 이란 표현이 적절할 듯. 물론 이것이 어느 한순간 짜잔하고 등장한 것은 아니다. 세월이 흘러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도 있고, 이것을 얻기 위해 노력도 많이했다. 대표적인 방법이 '독서' 다. 나와 다른 시대, 다른 세상의 다른 성(性)이 겪는 갖가지 상황을 책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다 만나볼 수 있을 것인가. 다양한 상황에서 느끼는 주인공의 감정을 함께 공유하고 지은이가 설파하는 주장에 귀 기울이며 나와 다른 이들에 대한 '관용' 도 함께 깊어지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상당한 이해심의 소유자라고 생각한다면 오해마시길. 아직 진행중인 상황이니...

삶을 살아갈 때, 항상 머피의 법칙이나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닌다.

하지만 머피의 법칙이란 문제를 그냥 간과했을 때 찾아오는 것이며, 두려움이란 자신의 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의 한 표현일 뿐이다. 내 삶을 풍부하게 하는 내안의 콘텐츠는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 문제를 대처해 나가는 슬기로운 자기 수양으로 터득해 나가는 것이며, 어떠한 두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자신에 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자 하는 것이다.

독특한 삶의 아이디어는 문제를 슬기롭게 보는 시각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 다산네트웍스 박지영

## 코마스 이정길

회사생활에 있어서 나 자신을 관리하고 운영해가는 나만의 콘텐츠는 바로 웃음이다.

IT세계에서 다양한 일들을 겪고, 외국인들과의 잦은 만남 속에 지내온 사회생활 6년째이다. 웃음과 함께 다가설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사회 및 생활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는 주요소인 자극(Stimulation)들이 현재의 나를 존재하게 한다. 그리고 미래의 나를 그릴 수 있도록 만든다. 때론, 썰렁한 개그 속에 번져버린 웃음과 행동이 오해를 야기한 적도 있지만...

나는 현재의 나 자신을 사랑하며 미래의 나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이(人)에 대한 생각으로 즐거운 나날을 보낸다. 그러한 생각과 함께 오늘 하루도 웃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만의 콘텐츠가 아닐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전 그 답이 바로 '자신' 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형 인간이 되라는 말에 '나도 아침에 영어학원이라도 다녀야 하는 거 아닌가?' 직장인들 대부분 투잡을 희망한다는 말에 '나도 밤에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스스로 반문해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현대 직장인들의 운동 부족을 언급하며, 어떤 TV 프로그램은 직장인들에게 줄넘기까지 나눠주며 운동을 권하고 있습니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또 짬 내서 공부도 해야 하고, 더 짬 내서 운동도 해야 하는 현대인이 불쌍합니다. 그렇게 불쌍한 자신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가 바로 '나' 라는 사실이 더 서럽습니다.

"나 자신과 타협하지 맙시다" 저의 모토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지는 멋진 삶보다는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안의 또 다른 나에게 지지마세요. 나를 이기는 자가 정말 승리자라고 하잖아요.

## 지식발전소 서원규